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11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주간농업농촌소식-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숨통’ -2면	-	제민일보
○ “노지 감귤 없어서 못 판다” ... 만감류 호조세 이어가나 주목-5면	-	제주매일
○ 12월에 찾아온 봄 날씨... 최고기온 기록 경신-4면	-	제주신문

(제주매일: 2023년 12월 11일)

○ 주간농업농촌소식-2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3-50호(2023.12.11.)

미래 지향적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구축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 월동준비: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 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 **브로콜리: 애월을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2024. 1. 15.**

- 신청대상: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11. 제주매일 2

(제주신문: 2023년 12월 11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2023-50호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 월동준비 :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 : 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 **브로콜리 : 애월을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 2024. 1. 15.**

- 신청대상 :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11. 제주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11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양파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 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 하고 적용약제 방제 △월동준비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브로콜리=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생육 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 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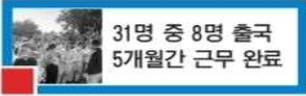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11.
제주일보 11

(제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숨통’ -2면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숨통’



31명 중 8명 출국
5개월간 근무 완료

올해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일손 돕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 지역 농가에 숨통이 트이면서 내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11. 제민일보 2면

농촌지역 일손돕기 역할 톡톡 일손 부족 문제 등 해소 호응 시, 내년 수요 결과 40% 증가

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베트남 남단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31명 중 8명이 지난 9일 본국으로 출국했다.

5개월간의 제주시 지역 농업 현장 근무를 마친 것이다.

이번 계절근로자는 지난 3월 29일 베트남 남단성과 제주시가 계절

근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31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했다.

이들은 농작업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밭작물, 과수 등 11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앞서 제주시는 업무협약 체결 외에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134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359명을 배정하는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제주시가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수요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40% 증가한 486명이 신청해 도입의향을 법무

부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말 법무부 배정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인원을 내년 1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귀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기간이지만 성실히 근로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며 "내년에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경역 기자

(제주매일: 2023년 12월 11일)

○ “노지 감귤 없어서 못 판다” … 만감류 호조세 이어가나 주목-5면

“노지 감귤 없어서 못 판다”...만감류 호조세 이어가나 주목

생산량 역대 최저치 기록...사과·배·포도 등 가격도 고공행진
평균 가격 전년 29%·2021년 대비 33% 높아...당도·품질 ↑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지감귤 가격이 심상치 않다. 현장에서는 현재의 같은 상황만 감류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12.11. 제주매일 5면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산 노지감귤 평균 가격(누계)은 5kg당 1만878원으로 2022년

8462원, 2021년 8205원과 비교해 각각 29%, 33%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노지감귤 가격 조사 시작 27년 만에 최고이다.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45만2100t으로 평년 47만700t보다 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잦은 폭우성 소낙비로 지역별로 7.6~17.4%의 열과가 발생해 40만t 내

외로 급감할 것이라는 입소문이 나고 있다. 실제 농업 조합장들과 농민들은 감귤 생산량이 최대 38만t에서 36만t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농사를 짓는 현민철씨는 “올해 제주도가 예상한 것 보다 감귤 생산량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주변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에 농민들과 현장 농업에서는 현재와 같은 가격 호조세가 만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육지부 봄

철 저온피해와 긴 장마로 인한 생리적 낙과로 사과·배·단감·포도 등의 착과수가 줄고 탄저병 등 병 발생이 늘어 생산량이 19~30% 줄어들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 감귤 농사를 지어 직거래로 판매하는 김모씨는 “올해는 감귤 생산량이 대폭 줄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도가 굉장히 높아 품질도 좋다”며 “날씨 상황이 좋아 만감류 당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좋은 가격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병근 기자

(제주신문: 2023년 12월 11일)

○ 12월에 찾아온 봄 날씨... 최고기온 기록 경신-4면

12월에 찾아온 봄 날씨...최고기온 기록 경신

주말동안 제주에 봄같이 포근한 날씨 이어지면서 12월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썼다.

10일 12.11. 제주신문 4면

22.4도로 기상관측 이래 12월 기록으로는 가장 높았다.

같은 날 서부지역인 고산의 낮 최고기온도 20.9도까지 올라 12월 기록으로는 역대 4위를 기록했다.

북부와 남부지역도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높게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제주기상청은 지난 8일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돼 낮 기온이 평년보다 7~11도가량 높은 현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포근한 날씨는 오는 15일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10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낮 최고기온은 최대 12도 가량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서희 기자 staystf@jeju.press.co.kr